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1.(목) 별도 안내 배포 2024. 1. 31.(수)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해 개혁 동력 강화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별첨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양윤석 (044-202-2310)
	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정민 (044-202-2304)
담당 부서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420)
		담당자	서기관	장태영 (044-202-2404)
담당 부서 (의료인력)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사무관	김영훈 (044-202-2442)
			사무관	김예슬 (044-202-2443)
			사무관	이기욱 (044-202-2435)
담당 부서 (병상관리)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상윤 (044-202-2450)
		담당자	사무관	이동우 (044-202-2451)
담당 부서 (의료분쟁)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미라 (044-202-2470)
		담당자	서기관	최세종 (044-202-2474)
담당 부서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044-202-2533)
담당 부서 (보상체계)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2-2730)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2-2732)
담당 부서 (필수의료)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담당자	사무관	김현아 (044-202-2667)
담당 부서 (지역의료)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 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임희주 (044-202-2681)

